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¹⁾

The Current State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Family Caregivers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으로 여타 청(소)년에 비하여 가사노동의 빈도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대다수가 우울한 것으로 확인된다. 절반은 돌봄으로 인하여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에서도 돌봄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주돌봄 청(소)년과 돌봄 시간이 긴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더 컸다. 그럼에도 가족돌봄 청(소)년 자신이 희망하는 돌봄 시간은 주당 14.3시간이었다. 이들은 가족돌봄이 본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의 실제 돌봄 시간이 주당 21.6시간이라는 맥락에서 초과된 돌봄 시간을 줄여 주면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최근 15년 사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돌봄 책임은 가족에게 우선 부여하고 있다(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

림,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역시 혼자 살거나 가족이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때에만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정책이 가족의 돌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돌봄의 상당

1) 이 글은 함선유, 하은솔, 김문길, 안수란, 김성아, 신유미, 구민지. (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세종·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이다.

한 책임을 가족에게 부여하면서도 누가 얼마나 가족을 돌보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진한 상황이다.

가족을 돌보면서 감수하는 비용에는 의료나 사회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직접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면서 포기하는 다른 활동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Fast, Williamson, and Keating, 1999). 가족돌봄자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돌봄에 따른 기회비용이 삶의 전 영역에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기는 교육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숙련 기술과 역량을 쌓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이행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과도한 돌봄은 학습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자 전반에 대한 미진한 관심 속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어려움 역시 부각되지 못하였다. 2021년 아버지를 돌보던 청년이 존속살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통해 비로소 가족돌봄 청년의 삶이 사회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가족돌봄 청소년 또는 청년은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 가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돌봄자 중에서도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부터 24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13세 이상

으로 한정하였다. 물론 12세 이하 아동·청소년 역시 돌봄을 제공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으나, ‘아이돌봄지원법’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역시 중고등학생부터 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12세 이하 아동의 현황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 글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1차 설문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기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된 온라인 링크 접속자와 조사업체의 19~34세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가족 중 일상생활활동(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일상생활활동(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 불가한 가족원이 있는지,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가족돌봄 청년으로 판별된 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의 기간과 시간,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욕구를 조사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는 총 3만 5,101명이었으며, 2차 조사 응답자는 810명이었다. 이 글에는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 가족돌봄 청년의 규모: 자료원별 추정치와 한계

가족을 돌보는 일은 일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꽤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재 전 인구 중에서 누가 얼마나 가족을 돌보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가족돌봄자에 대한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조사가 없기 때문이다. 가족돌봄자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노인, 아동, 또는 장애인 등 돌봄의 욕구가 있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자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경험을 청소년기나 청년기와 같이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일은 드물어서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돌봄 청년의 규모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가구원과의 동거 여부와 가구 구성을 토대로 가족돌봄 청년의 규모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각 자료원은 각기 다른 한계를 지니므로 하나의 자료원을 토대로 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자료원의 수치를 검토하고 각 자료원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우선 전국적인 대표성이 있는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걷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육체적 제약, ④ 기억하거나 집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정신적 제약, ⑤ 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적·자폐성 장애, ⑥ 언어장애)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있는 이들을 돌봄이 필요한 이들로 보고 이들과 동거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과 청년의 규모를 가늠해 보았다. 그 결과 해당 연령대의 4.8%가량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 다만 동거만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돌봄 필요 가구이면서 가구원 중에서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없는 중장년층이 없는 가구에 속한 비율을 계산했다. 그 결과 해당 연령대의 1.4%가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 또는 노인,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속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과 동거하는 청년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다만 이러한 추정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 전체가 돌봄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돌봄을 실제 제공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 동거 가족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축한 가족 DB를 활용하여 2020년 12월 말 기준 생존자의 5%를 무작위 추출하여 유사한 분석을 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장애등급을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심장질환이나 악성신생물, 척추손상, 고관절 골절 등에 따른 중대 수술을 받은 경우를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할 때 돌봄이 필요한 2촌 이내 가족과 동일 읍면동 주소지에 거주하는 13~34세 비율은 11.4%로 파악된다. 장

매등급 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중대 수술을 받은 2촌 이내 가족과 동일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다른 중장년 가족이 없는 비율은 0.8%였다. 이러한 추정치는 비동거 가족을 포괄하지만 돌봄의 필요를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 중대 수술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필요를 과소 추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2022년 19~59세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중 50.8%가 정기적으로 돌보는 대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만 19~29세 청년 역시 그 비율이 20.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변수정 외, 2022; p. 131). 청년의 경우 돌봄의 1순위 대상이 부모인 경우가 44.2%, 형제자매가 6.9%, 조부모가 11.9%로(p. 454), 자녀가 아닌 정기적 돌봄 대상이 있는 청년의 규모가 전체 12.9%에 이르렀다. 물론 청년의 경우 본인의 돌봄 부담 비율이 50.8%로 낮다는 점, 돌봄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73.7%라는 점에서(p. 137) 전체 청년 중에서 부담을 느끼는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비율은 5.4%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2022년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는 가족돌봄 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가구에서 만성화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포함하였고(정세정 외, 2023), 이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0.6%였다. 청년 중에서도 고졸 이하 학력자 중 가족원을 돌보는 책임을 맡는 비율은 1.1%였다. 대졸 이상 0.6%, 현재 학생 0.4%로 학력별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통상 청년들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돌봄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부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돌봄 제공을 작게 추정할 수 있으며, 돌봄 제공을 책임지는지만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 주돌봄자가 아니더라도 돌봄의 필요가 높은 가구원의 경우 돌봄의 시간이 월간 90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는 사례가 있었다(함선유 외, 2022; p. 15).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청(소)년 1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13~34세 청소년과 청년 응답자 3만 5101명 중에서 ADL 또는 IADL에 제약이 있는 가족원이 있다는 비중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5.7%, 19~34세는 16.7%였다. 해당 가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세 이하는 2.1%, 19~34세는 11.0%였다. 가족돌봄자라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2차 조사에서는 본인이 주돌봄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을 가족돌봄 청년 비율에 단순 적용해 보면 대략 0.9%(18세 이하 청소년)에서 4.3%(19~34세 청년)가량이 주돌봄자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그러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이 아니며,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표 1] 자료원별 가족돌봄 청년 추정치와 한계

		인구주택 총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전국 일-생활 균형실태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 대상 연령		13~34세	13~34세	19~29세	19~34세	13~18세	19~34세
추정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년	4.8%	11.4%	12.9%	-	6.2%	16.2%
	가족돌봄 청년	-	-	-	-	2.4%	10.8%
	주돌봄자 청년	1.4%	0.8%	-	0.6%	0.9%	4.3%
추정의 한계	대표성	○	○	○	○	x	
	실제 제공 여부 파악	x	x	○	○	○	
	가족의 범위	동거 가족만 포함	2촌 이내 가족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제약 없음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건강보험 빅데이터) 함선유. (2022). 우리나라 가족돌봄청년 규모와 특성, 복지욕구. (전국 일-생활 균형실태조사) 변수정 외. (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p.454 참조하여 계산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돌봄 청(소)년 설문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가족돌봄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해당 주제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조사를 완료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와 교사를 통하여 조사 참여에 대한 안내가 있었던 청소년과 달리 주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청년의 경우 이러한 편의(bias)가 클 수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는 4.5%,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존재하는 비율은 11.4%에서 12.9% 정도로 보인다. 가족에 대한 돌봄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주돌봄자로 예상되는 비율은 0.6%에서 1.4%가량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추정치라 할 수 있는 0.6%를 19~34세 청년 인구에 적용해 보면 대략 6만 1,000명의 청년이 가족돌봄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가족돌봄 청년의 특성

가. 인적 특성

가족돌봄 청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돌봄자의 성별, 연령, 소속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통상 가족돌봄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선행 연구(함선유, 2017)와 달리 청년층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돌봄 청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4.1%로 동일하였다. 주돌봄을 맡고 있는 청년 비율 역시 남성 41.9%, 여성 37.9%로 남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는 비율²⁾은 남성 38.9%, 여성 38.3%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

[표 2] 가족돌봄 청년 특성별 주돌봄자와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자 비율

(단위: %)

구분		주돌봄자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
전체		39.4	38.5
성별	남성	41.9	38.9
	여성	37.9	38.3
연령	18세 이하	35.4	44.9
	19~34세	40.3	37.1
현재 상태	중·고등학교, 대학(원) 재학	33.5	37.6
	일하고 있음(휴학 중 일함 포함)	40.3	34.0
	학교 다니고 일도 하고 있음	40.5	40.5
	해당 없음	48.3	56.1
경제 수준	경제 수준 낮음(하층, 최하층)	44.6	43.5
	경제 수준 중간 이상(중간, 상층, 최상층)	35.1	34.4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가족돌봄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의 돌봄과 달리 청년기의 돌봄은 성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돌봄을 책임지는 비율이 높아졌으나,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는 비율은 성인에 비하여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주돌봄자 비율은 33.5%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주당 15시간 이상 돌보는 비율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학업 중이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이들에게서 높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일이나 학업 모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주돌봄자의 비율도 높고,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학업이나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의 24.6%는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다닐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주관적인 경제 수준이 낮다고(하층 또는 최하층) 응답한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 주돌봄자 비율이 44.6%,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자 비율이 43.5%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관적 경제 수준이 중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주돌봄자와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자 비율이 각각 35.1%, 34.4%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돌봄 청년 중에서도 가구의 배경이 어려운 경우 돌봄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주돌봄자는 가족돌봄자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돌봄의 상황을 가장 잘 알거나 이를 책임지는 이들을 의미한다.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자는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다. 가령 영국에서 이뤄진 영케어러 조사에 따르면 영케어러 12명 중 1명은 주당 15시간 이상을 돌보고 있다(Hounsell, 2013, p. 5).

나.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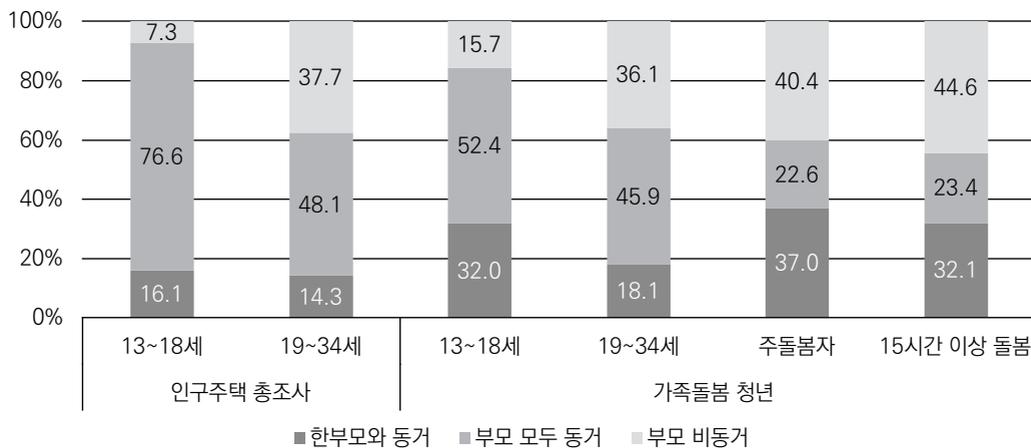
다음으로 가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 의 동거 여부를 토대로 가구 유형을 분석하였다. 가족돌봄 청년 중에서도 13~18세의 경우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비율이 52.4%였으며, 부모 중 한 명과만 동거하는 경우가 32.0%,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7.3%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해당 연령대의 가구 유형별 비율과 비교할 경우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과 부모 모두와 비동거하는 비율은 각각 2배가량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여타 청소년과 가

구 유형부터 상이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19~34세 청년의 경우 한부모 동거 비율이 18.1%, 양부모 동거 비율이 45.9%, 부모와 비동거 비율이 36.1%였는데, 이 비율은 전체 청년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한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돌봄의 강도별로 보면 본인이 돌봄을 책임지는 주돌봄자인 경우 40.4%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으며, 37.0%가 한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이는 돌봄을 책임지는 상황은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만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주돌봄자인 경우가 있다는 점은 앞서 인구주택총조사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가구

[그림 1] 가족돌봄 청년의 가구 유형

(단위: %)



주: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부모 비동거에 분류될 수 없는 모든 유형을 포함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가족돌봄 청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가족돌봄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유형만으로 주돌봄 여부를 추정하는 데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가족돌봄 청년의 삶

가. 가사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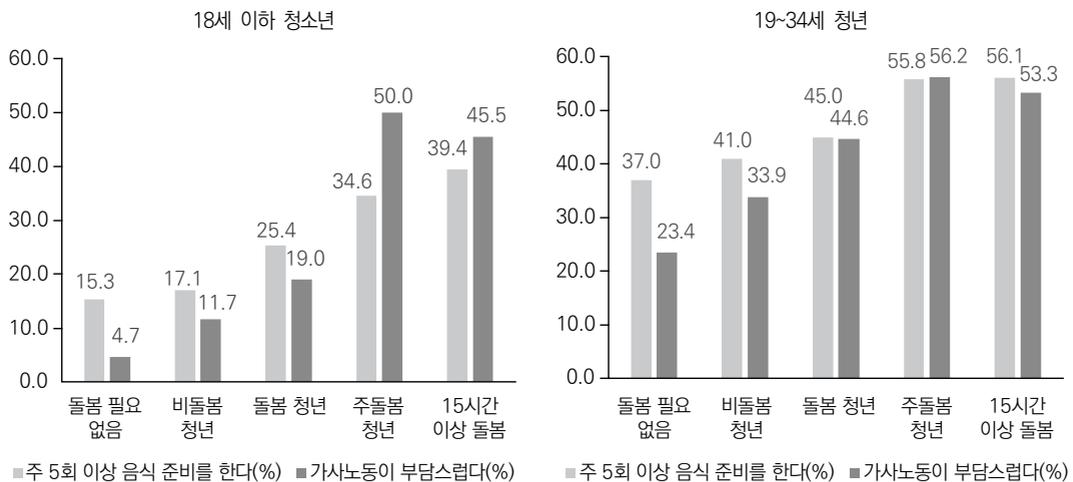
가족돌봄 청(소)년은 여느 가족돌봄자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의 부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가사노동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없는 19~34세 청년의 경우 음식

준비를 주 5회 이상 수행하는 비율이 37.0%였으나, 돌봄 청년은 45.0%였다. 18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없는 경우 주 5회 이상 음식 준비를 하는 비율이 15.3%였으나, 돌봄 청년의 경우 25.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가사노동이 부담스러운 편이거나 매우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은 일반 청년은 23.4%였으나, 돌봄 청년은 44.6%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없는 경우 4.7%, 돌봄 청소년은 19.0%가 가사노동의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지만 본인은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 비돌봄 청(소)년의

[그림 2] 가족돌봄 청년의 가사부담노동 수행과 부담

(단위: %)



주: 비돌봄 청년은 ADL 또는 IADL에 제약이 있는 가족이 있지만 본인은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가족돌봄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가사노동 빈도와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비돌봄 청(소)년의 가사노동 빈도와 부담 수준은 돌봄 청(소)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없는 청(소)년의 중간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본인이 돌봄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돌봄에 참여하는 숨은 돌봄자(hidden carer)일 가능성이 있다.

나. 돌봄 시간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돌봄 시간은 21.6시간 정도였다. 주돌봄자일 경우 주당 돌봄 시간이 32.8시간이었는데, 주중에는 21.7시간, 주말에는 11.1시간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중에는 4시간, 주말에는 5시간가량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돌봄자가 아닌 경우 돌봄 시간은 상당히 줄어드는데, 주중에

9.6시간, 주말에는 4.7시간이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돌봄 시간에 차이도 나타났는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주당 26.0시간을 돌보지만 경제적 수준이 중간 이상이면 17.8시간을 돌보았다.

이러한 돌봄 시간은 희망하는 돌봄 시간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가족돌봄 청(소)년 본인이 시간을 정할 수 있다면 원하는 돌봄 시간은 주당 평균 14.3시간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나는 돌보기를 원한다”는 문장에 부정적으로(“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 응답한 비율은 31.5%였으며,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문장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역시 10.6%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들이 돌봄을 전적으로 꺼리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다만 희망하는 돌봄 시간에 비하여 주당 평균 7.3시간가량을 더 돌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주돌봄자의 경우 희망하는 돌봄 시간

[표 3]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시간과 희망 돌봄 시간

(단위: 시간/주당)

구분	실제 돌봄 시간 평균			희망 돌봄 시간 평균			(실제 돌봄 시간-희망 돌봄 시간)			
	합계	주중	주말	합계	주중	주말	합계	주중	주말	
전체	21.6	14.4	7.2	14.3	9.7	4.6	7.3	4.7	2.6	
주돌봄 여부	주돌봄자	32.8	21.7	11.1	19.1	13.2	5.9	13.6	8.5	5.1
	주돌봄자 아님	14.3	9.6	4.7	11.2	7.4	3.8	3.1	2.3	0.9
경제 수준	경제 수준 낮음	26.0	17.1	8.9	15.8	10.6	5.2	10.3	6.6	3.7
	경제 수준 중간 이상	17.8	12.1	5.8	13.1	8.9	4.2	4.8	3.2	1.6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가족돌봄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이 19.1시간으로 본인이 원하는 돌봄 시간에 비하여 13.6시간가량 더 많은 시간을 돌보고 있었다. 주중에는 8.5시간(일평균 1.7시간), 주말에는 5.1시간(일평균 2.6시간)으로 주말의 부담이 다소 컸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도 희망하는 돌봄 시간과의 격차가 10.3시간으로 크게 나타났다. 주돌봄자가 아니거나 경제적 수준이 괜찮은 경우 희망하는 돌봄 시간과의 차이가 각각 3.1시간과 4.8시간으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다. 우울과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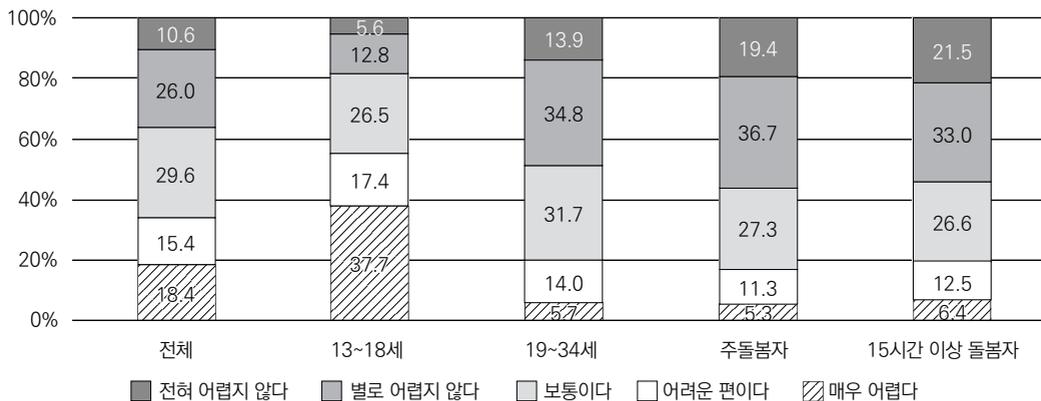
가족돌봄 청(소)년의 우울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난다. CES-D 척도 11문항을 토대로 가족돌봄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확인한 결과 61.5%가 우울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53.7%가, 19~34세 청년의 경우 63.2%가 우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에 대한 돌봄 강도가 높을수록 우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주돌봄자는 70.9%가,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자의 경우 68.9%가 우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복지패널에서 19~34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우울 비율이 8.5%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 우울 수준이 일반 청년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당한 비율의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의 진로나 학업 등을 이어 가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19~34세 청년의 경우 48.7%

[그림 3]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 경험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가족돌봄 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가 “어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18.6%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일지라도 본인이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주돌봄자인 경우 돌봄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각각 44.4%, 42.4%가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가족돌봄에 대한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부담 역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과 청년 전체에서 주돌봄자인 경우 56.1%가, 주 15시간 이상 돌봄자의 경우 54.5%가 돌봄으로 인하여 미래를 계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 나가며

우리나라 가족돌봄 청(소)년의 규모와 특성, 삶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족돌봄 청년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양한 자료원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추정해 보면 최소 0.6%의 청년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의 돌봄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력이 낮고,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주돌봄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 청년들이 상당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가족돌봄 청(소)년은 여타 청(소)년에 비하여 가사노동의 수행 빈도가 높았다. 가사노동에 부담을 느낀다는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적인 청소년, 청년과 달리 가족돌봄에 따라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돌봄의 부담 속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진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에서도 돌봄의 강도가 높은 주돌봄자나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자의 경우 이러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가족돌봄 청(소)년의 경우 우울 수준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 역시 위태로운 수준이었다.

이 같은 가족돌봄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가족돌봄 시간은 주당 14.3시간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일을 부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59.1%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을 돌보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청년 역시 28.0%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방향이 가족돌봄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시설 입소 등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과도한 돌봄 시간을 줄여 줄 수 있는 재가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가족돌봄 청(소)년의 45.4%가 본인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하층이나 최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본인과 가족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75.6%로 돌봄 지원이나 취업, 심리상담 등 여타 복지 지원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가족돌봄의 상황에서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직접 생계를 책임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 역시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들이 생애 초기에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것에 더해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정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에서는 가족돌봄자의 일반적인 경험인지 아니면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인지를 결론 내리기 어렵다. 가족돌봄자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돌봄자의 우울 수준이나 복지 욕구는 중장년 또는 노년의 돌봄자가 지닌 어려움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돌봄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청(소)년의 특수한 욕구에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가족돌봄 청(소)년의 욕구에 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가족돌봄자의 규모와 이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 역시 이뤄져야 한다. ■

참고문헌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변수정, 오신휘, 조성호, 김은정, 이해정. (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가족돌봄 청(소)년 설문조사' 1, 2차 조사 원자료.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 문화** 27.3 (2015): 1-38.
 정세정, 김태완, 김동진, 김문길, 김기태, 이원진, ... 강예은.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함선유. (2017). 비공식 돌봄과 시장 노동 참여: 일상생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pp. 295-321.
 함선유, 하은솔, 김문길, 안수란, 김성아, ... 구민지. (2022).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선유. (2022). 우리나라 가족돌봄청년 규모와 특성, 복지욕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Fast, J. E., Williamson, D. L., and Keating, N. C. (1999). The hidden costs of informal elder ca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0(3): 301-326.
 Hounsell. (2013). *Hidden form view: The experiences of young carers in England*. The children's Society.

The Current State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Family Caregivers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Ham, Sunyu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ho provide care for family members report doing housework more often and having lower life satisfaction levels than their non-caregiving counterparts. The majority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family caregivers are depressed, with half reporting having difficulties with their studies, careers, or planning for the future due to caregiving. Among them, difficulties were greater for primary caregivers and those with long caregiving hours. Despite this, these family caregivers wanted to spend on average 14.3 hours a week caring for their family in need of care, and they reported that caring for their family was very important to them. Given their actual caregiving hours of 21.6 hours per week, there is a need to relieve them of their excessive caregiving burden while still allowing them to live with their families in the community.